

유럽공동체의 정치사상적 기원*

조 찬 래

유럽의 정치사에서 연방유럽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으므로 유럽공동체도 이러한 맥락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연방의 기원은 중세의 보편적, 다원적 사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당시의 연방주의는 사회조직의 일반원리로써 다원주의의 한 국면으로써 간주되었다. 중세사회와 또다른 연방의 지적 유산으로는 제국의 국가형태를 들 수 있다. 제국은 다민족적인 구성국가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해서 국가적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 처방책으로써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로마제국과 신성로마제국의 역사적 실제에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방유럽의 지적 유산은 연방유럽의 관념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제기되었던 Pierre Dubois, M. Chevalier, Cattaneo 및 Mazzini 등의 연방유럽관념들은 단편적이고 비체계적이었으므로 정치적 효과보다는 도덕적 효과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후 연방유럽의 관념은 다양하게 출현하면서 더욱 발전했다. 저항운동의 연방관념, 모네의 연방관념 그리고 영국의 연방유럽관념들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다. 저항운동가들은 주권을 초월해서 유럽국가들로 구성된 민주적 연방의 수립을 주장했다. 모네는 신기능주의적 점증주의에 의존하는 연방유럽의 건설을 제안했다. 그의 연방유럽관념은 반국가주의, 중앙집권화된 공동체제도의 형성 그리고 각국의 엘리트간의 집단적 협상의 주제들을 강조했다. 영국의 연방유럽관념은 처음에는 식민지들로 구성된 연방제국의 형태였지만 제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유럽의 국제정세에 변화하는 중요한 외교전략으로써 간주되었다. 1980년대에 영국의 연방관념은 대륙의 연방유럽전통에 흡수되어서 연방관념이 대륙에서 다시 인상적인 활력을 갖고 유럽인들의 관심을 받게 했다. 연방유럽의 관념들은 국제정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정치와 민족국가의 주권문제 그리고 정치엘리트들의 지도력 문제 등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어야만 유럽공동체는 연방의 정치적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 그것은 연방도 연합도 아닌 국제체제의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I. 서 론

하나의 유럽(또는 연방유럽)을 건설하려는 목표는 발전과 퇴보, 낙관과 시련이 반복되는 역사적 순환과정 속에서도 계속되어온 유럽인들의 이상이었다. 오늘날 유럽의

* 이 논문은 1993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지역연구)에 의해 연구되었음.

통합은 역사의 어떤 시기보다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1년 12월에 유럽공동체 구성국가의 정상들에 의해서 마련된 마스트리히트조약 (Maastricht Treaty)의 비준을 공동체 구성원 국가들이 각기 국내적으로 마침으로써 유럽공동체는 연방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은 사회 경제적 통합의 단계를 거쳐 정치적 통합의 단계를 이룩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섰다.

이러한 유럽의 정치적 통합이 정치사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연방유럽의 달성은 근대민족국가체제의 확립과 더불어 사라졌던 보편적 질서의 형성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근대국가는 인간의 정치생활의 기본단위로서 유익한 가치를 상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럽인들은 다원적이고 분권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중세의 보편적 질서를 해체시켜 근대국가를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주는 정치생활의 기본단위로써 선택했지만 과거 400여년 동안의 경험은 이러한 이상과는 거리가 있는 실망과 좌절의 연속이었다. 제 1차 세계대전과 제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근대국가에 대한 유럽인들의 부정적 감정과 시각을 한층 강화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연방유럽은 유럽의 정치사에 깊게 묻혀있는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인들은 근대국가의 특수한 조건에서 중세의 정치, 경제적 보편성을 파괴시켰지만 문화적 단일성을 유지시켰다. 즉 그들은 특수 개별국가들의 다양한 조건 속에서 기독교 문명을 근본으로 하는 문화적 일체성(identity)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문화적 일체성도 개별국가들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조건에서 는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근대국가를 초월한 보편적 질서하에서 영위되는 생활이 성취되어야만 문화적 일체성은 정치와 경제분야에까지도 확대될 수 있고 이는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첨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연방유럽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전후 40여년 이상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공동목표지만 일체성 확보라는 의미에서 그것은 근대국가 이전의 보편적 질서와의 역사적 연계성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통합의 연방체제로의 발전가능성은 그것의 역사적 유산과의 관련에서 분석되어야 하는 타당성이 성립된다.

이 연구는 연방유럽의 역사적 경험이 누적되어 왔으므로 그것의 확립을 가능케 하는 역사적 요인들을 추출, 분석해서 유럽통합의 궁극적 지향점은 유럽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의 각 분야에서 일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요인들이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유럽통합의 관념들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즉, 그들의 연방유럽관념들이 이러한 역사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려고 한다. 이어서 민족국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유럽통합의 달성과 관련된 문제집들을 기술함으로써 연

방유럽의 가능성을 짐작해 보겠다.

II. 유럽통합의 전통

1. 유럽개념의 역사적 진화

역사적 개념으로서 유럽은 그리스와 로마로부터는 철학과 법률을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는 기독교를 수용함으로써 형성되었다. 헤겔이 지적한 것처럼 그리스·로마와 이스라엘은 유럽의 철학, 법률 및 종교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김영옥 역, 1983: 127-143). 유럽의 형성은 정치적 특성이라기 보다는 문화적 특성이 지배적이므로 유럽통합은 문화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통합이 출현한 시기를 고정시키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로마제국의 멸망과 기독교세력이 확장하는 시기를 통합의 시발점으로 일반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로마제국에 의해서 제공된 정치적 질서가 붕괴됨에 따라서 새로운 세계가 출현하였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적, 법률적 가치를 보존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 가치가 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면서 내세적 전망을 중시하는 교회사회의 확립인 것이다.

기독교의 강력한 영향하에서 역사적 실체로서 독특한 문명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화적 힘은 정치적 영역에까지 파급되어 중세의 기간동안 유럽은 신성로마제국 하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다(Haines ed. 1957: 2) 기독교의 중세사회에서 교회와 제국의 역학관계가 상호적으로 보완되면서 보편적 질서를 확립시켜주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럽의 통합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후에 출현하기 시작한 근대민족국가의 확립과 더불어 소멸되었다. 중세의 정신적 가치보다는 이상적인 현세생활이 중시되었고 보편적 질서는 주권과 군주를 최고 정점으로 하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법률적 특수주의로 대치되었다(Sibley, 1970: 292-293). 법률, 지식 및 종교의 단일성으로부터 정치적 통합을 유래한 기독교사회의 붕괴는 유럽대륙에서 정치적 우위성의 확보를 위해서 투쟁하는 독립국가들의 출현을 가져왔다. 주권은 군주의 불가양도적인 특권이기 때문에 국가의 배타적 독립의 표식이 되었다.

1648년 베스트팔렌(Westphalia)조약 이후에 유럽의 주권국가들은 세력균형 정책을 통해서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고 했다. 세력균형의 개념은 다수의 주권국가들을 인정하면서 대륙의 문화적 통합을 각 국가들의 입장에 기초한 정치적 관계로 대치시키려 했던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세력균형 정책은 유럽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한

경우도 있는 반면에 이것은 전쟁을 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약소국가는 강대국가들에 의해서 주도된 양진영의 한쪽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영은 더욱 증가했고 전쟁은 자주 발발했다. 세력균형의 개념은 강대국에 의존하는 자의적 상황에 이르게 했고 전체의 균형은 의제적 공존(a semblance of coexistence)을 조성하는 진영의 균형으로 대치되었다. 따라서 세력균형 정책은 매우 불안정한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보다는 그것을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Morgenthau, 1963: 204-223).

문화적 통합과 정치적 부분화간의 큰 간격은 이러한 기간 동안에 있었던 국제적 사건들에 의해서 조명되어진다. 이 기간 동안에 유럽국가들은 어느 시기보다도 수많은 갈등, 분쟁 및 전쟁에 종사했다. 특히 유럽인들의 제 1차 세계대전과 제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은 그들에게 유럽의 문제는 통합의 달성을 위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신념을 일깨워 주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힘의 상호작용은 근대국가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이므로 유럽국가들은 고립해서 존재할 수가 없고 전체로서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유럽국가들은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통합은 문화적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정치, 경제 및 사회의 영역에까지도 확대되는 전체의 통합이어야만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영속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통합이 전체의 통합이 아닐 경우 새롭고 진실적인 것이 없을 것이고 심지어는 세력균형의 낡은 정책으로 회귀하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적 통합 만이 이루어지고 다른 영역에서의 통합이 실패한 경우 공격 또는 공동의 적에 대한 두려움은 정치적 부분화를 구체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연방유럽의 유산

유럽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방관념 또는 연방원칙이 논의의 핵심이 되었다. 연방유럽의 관념은 최근 수많은 정치학자들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제시되었지만 유럽의 역사적 전통에서도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달리 말해서 그것은 유럽의 역사적 경험과 현존하는 연방체제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실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연방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학자들이 각자의 입장과 기준에 따라 연방을 개념화하려는 노력의 소산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개념을 현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개념적 혼동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서는 개념의 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 연방 개념에 관한 정의를 우선 분석한 후 이러한 개념이 유럽의 전통에 어떠한 양태로 나

타났는지를 고찰하겠다.

1) 연방의 개념

연방의 개념에 관해서는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하고 있다. P. King(1982: 97)은 연방은 주권국가의 형태와 중앙정부가 그것의 결정과정에 지방단위를 포함하는 사실에 의해서 다른 국가들과 구별되는 제도적 장치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일련의 논쟁을 야기할 것 같지는 않지만 몇 가지 시사성을 주고 있다. 연방원칙은 조직원리가 되고 연방은 이러한 원칙에 대응하는 조직의 형태가 된다는 논리가 도출된다. M. J. C. Vile(1977: 3)은 연방을 정부의 여러 수준 사이의 상호독립과 상호의존간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부식시켜 주는데 공헌하는 일단의 헌법적, 법적, 정치적, 행정적 및 재정적인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 M. Grodzins(1967)는 연방을 정부의 결정과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으로 정의하였다. C. Freidrich(1965)도 연방은 이질적인 공동체에 적합한 정치조직의 형태라고 하면서 확고하고 변경할 수 없는 규칙에 의해서 규제되는 정적인 고안이라기보다는 과정 즉 변화하는 관계의 진화하는 양상이라고 했다.

이러한 정의들에서 균형의 곤란한 문제를¹⁾ 제외하고는 넓은 범위에 걸쳐서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즉 연방은 구조, 제도 그리고 기교를 포함하는 특정의 조직형태라는 것이다. 이 정의들은 연방을 입헌적 정부를 가지고 있는 분권적 정치체계로 간주하고 있다. 연방체계는 최고 헌법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주권(권력)을 배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연방은 입헌적이며 민주적인 것이다.

반면에 E. Mcwhinney(1962)는 구심적 경향으로 특징화되는 일원적 연방주의와 원심적 경향으로 특징화되는 다원적 연방주의를 구분하면서 그것을 마음의 상태, 즉 사회심리적 태도라고 보았다. 그는 연방주의를 다원주의와 연관시키면서 논하고 있다. 어느 의미에서 연방주의는 다원주의의 한 형태 또는 소범주라는 주장에 제시되었다. P. King(1982: 75)도 다원주의는 연방주의보다도 더 넓은 이론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주의가 다원주의내에서 적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유사하게 Lijphart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방주의와 다원주의를 관련시키면서 민주주의에 관한 경험적, 규범적 모델들을 정립했다(최명 역, 1985). 이들 정의들은 연방원리는 다원적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을 조정, 경합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다원적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하거나 조직하는 방식이 연방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원주의는 사회적 연방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다.

1) 이것은 학자들간에 매우 논쟁적인 문제이다. P. King(1973:151-156)은 연방우위성은 균형론을 허용치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에 M. Stein(1968:727)은 균형관념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 연방주의는 사회를 강제적으로 통합시키는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고 대신에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역할 및 일체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집단들의 역할을 강조한다. 국가는 갈등을 조정해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단들이 다차원적인 인간생활의 복잡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은 국가보다도 집단에 대하여 충성과 헌신을 하는 정치생활 양태가 출현한다. 명백히 이것은 범인체 또는 집단의 자율지배의 경우인 것이다(King, 1982: 140)

2) 연방유럽의 유산

유럽의 정치사에서 연방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다. 연방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국가간 전망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내적 전망에 관한 것이다. C. Pentland(1973: 158)는 연방의 이러한 형태들을 각기 국제적 또는 국내적 분열이라고 불렀다. 그에 의하면 전자는 주로 평화와 안전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제 평화이론인 반면에 후자는 국내정치조직의 이론이라는 것이다. 국가간의 전망은 연방 유럽의 관념을 암시한다. 특정적으로 그것은 유럽에서의 국가들간의 연방관계에 초점을 둔다. 유럽의 정치적 통합의 맥락에서 국가간의 전망이 더욱 적합한 주제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연방의 역사적 유산의 견지에서 볼 때 국내적 전망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연방국가내에서 권력집중화, 분권화의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토착적인 전통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그것이 유럽의 정치사상과 사회조직의 양상에 흡수되도록 한다. 유럽의 정치사에서 국제간의 전망보다도 국내적 전망이 더 많은 역사적 실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방유럽의 관념을 정립하는데 유익한 이론적 자료와 역사적 교훈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유럽의 전통에서 나타난 풍부하고 다양한 연방주의를 조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원주의와 연관시켜 논의하는 것이 일반사이다. C. Pentland는 연방유럽의 역사적 기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연방의 기원은 중세의 유럽사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당시의 연방원칙은 영토적 국가의 법적 구성과 친숙한 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러한 사상의 전통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이다… 그것의 분석은 소집단과 사회적 변수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것의 쳐방책도 국가의 경계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있는 근본적 사회재구성에 집중되어 있다(1973: 159-160).

여기에서 연방주의는 사회조직의 일반원리로서 다원주의의 한 국면으로서 간주된다. 중세의 봉건적 정치질서는 분권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군주 또는 황제가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교회가 보편적 제도로서 정치세력화한 상황에서 다원주의는 출현할 수 있었다. 종교가 인간생활의 모든 면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교회는 계서적인 조직체계를 구비한 제도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결국 국가의 세속권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신성정치를 확립하였다(Sidgwick, 1969: 220-221). 교회의 권위는 세속권의 강화를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지방적(봉건제 후) 이익 또는 사회집단의 성장을 조장시켰다. 여러 도시 종교단체, 특수직업단체(corporation)등이 자유롭게 형성, 성장하였다. 그러므로 중세의 보편적 질서는 종교의 우월한 가치하에서 사회의 자연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직화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집단들의 형성은 사회적 분화를 촉진시켰고 이는 개인들에게 국가보다는 집단에 대해 충성을 표시하는 경향을 배태시켰다. 이런 점에서 중세의 생활양태는 다원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개인의 생활이 교회, 직업단체 및 도시 등에 명백히 나타나는 사회생활을 강조했다(Nicholls, 1975: 10-11).

여러 학자들은 중세 사회의 다원적 성격을 연방주의와 관련해서 지적하고 있다. 17세기 초에 사회 분화의 이론을 최초로 공식화한 알투지우스의 관념은 중세의 유기체적 구조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의 사회이론은 개인이 국가의 근본요소인 종교적, 세속적 결사체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게 하는 자연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결사체, 또는 중간 집단들은 종교집단, 길드, 코뮌(commune), 특수직업단체, 도시(town), 상업조직 그리고 다른 조직들의 복잡한 혼성체인 것이다(Sabine, 1956: 418-419). 이들은 국가형성 이전에 존재하는 것으로 사회의 실제적 관례를 구성한다. 알투지우스는 가족 결사체, 코뮌 지역(province)등은 국가내에 포함되거나 개인과 국가사이에 놓여지게 됨으로써 최종적으로 국가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알투지우스는 중세의 정치적 사실에 입각해서 정치이론을 확립한 중세적 법인체주의자, 초기의 다원주의자 및 원시적 연방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Otto. V. Gierke(Maitland trans., 1960:XVii-XIix)도 중세의 정치사상은 전체로부터 시작해서 부분적 전체를 거쳐 개인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여기서 전체는 신에 의해 조직된 거대한 천체를 그리고 부분적 전체는 이러한 질서와 개인을 조정하는 요소들, 즉 촌락, 도시, 결사체, 왕국등을 각기 의미한다(Maitland, 1960: 9).

이러한 집단들은 중세 사회의 다원적 특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했지만 그들 모두는 오직 신의 의사에 복종함으로써 중세 사회는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중세 사회는 다양한 집단의 존재속에서도 통일을 유지할 수 있었다.

S. Erlich(1982: 71-75)는 중세의 이러한 집단들이 독자적 인격체를 갖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그들의 기원과 활동은 국가에 의해서 법인체적 지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스스로 자신들을 통치할 수 있는 자율적 단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들은 국가를 내에서 획득될 수 있는 결과는 다른 자유의 영역이 존재하는 실체적 실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학자들의 중세 사회의 다원적 성격에 관한 분석은 다원주의가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연방주의보다 포괄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중세사회에서 국가의 간섭과 도움없이 자유롭게 형성된 집단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원주의는 철학적 언명과 역사적 사실로서 연방주의보다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社会의 분석을 통해서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이 연방주의자와 다원주의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개념들은 명확히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확히 말하면 중세의 다원주의는 연방의 비영토적 기능적 및 집단적 개념의 확립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유럽의 전통에서 그것은 사회조직의 중요한 원리로써 법인체적 형태(corporatist mould)로 여러 집단의 일체성을 동원, 보호 및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²⁾

연방유럽의 또 다른 유산으로는 제국의 국가형태를 들 수 있다. 유럽의 역사에서 제국은 다민족적인 구성국가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해서 국가적 통일을 확보하는 문제를 연방주의로 해결하려고 했다. 연방의 관념은 제국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강화해 준다는 점에서 제국과 구성국가들간의 증가하는 관계에 적실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연방주의적 해결은 일반적으로 구성국가들의 독립과 제국의 해체에 대한 대안으로써 제시된 것이다.

유럽에서 제국이 국가의 적정규모로서 존재했던 역사적 실례로는 로마제국과 신성로마제국을 들 수 있다. 황제는 제국의 보편적 질서를 통치하는 수장으로써 그의 권한은 형식적 의미에서 인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행사된다. 로마법학자인 율피언(Ulpian)은 황제의 의지는 인민이 그에게 자신들의 권력과 권위를 양도, 위임했기 때문에 법의 힘을 갖고 있다고 했다(Sabine, 1956:171). 이러한 이론은 엄격히 법률적 의미에서 이해할 때 황제의 절대주의화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인민주권과 관련이 있는 입헌정부와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율피언의 언명은 법은 인격적 주체로서 존재하는 인민의 공동소유라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념은 관습법은 공동관례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인민의 동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론에 잘 나타나 있다. 중세사회에서 이러한 이론은 더욱 구체화되었으므로 신

2)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Bakvis(1981)

성로마제국의 황제는 세습적이지만 공동체의 동의를 얻어야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었다. 중세사회의 다원적, 분권적인 특성상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는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형식적 군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봉건제후들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징적 의미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제국옹호론자들은 제국과 황제의 역사적 사실을 지적하면서 제국연방으로의 점진적 발전은 제국을 위한 관습연맹(custom union)을 형성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중세의 보편적 다원적 사회에서는 종교와 다른 영역에서 공동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은 제국의 구성원들이 공동의 가치 신념 및 태도를 소유함으로써 이질적인 제국을 통일적인 보편적 사회로 변모시키는 정치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더우기 제국내의 평화와 안정은 이러한 바탕에서 잘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제국의 구성원은 어떠한 국가 규모에서보다 더욱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테(Dante)는 보편적 질서인 제국을 옹호하는 대표적 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중세제국은 로마제국을 승계했기 때문에 로마에 속하는 보편적 권리의 상속자라고 간주했다. 그는 이러한 보편적 권리가 세계의 복지에 필요하다고 보았다. 보편적 제국은 인간이 조직한 결사체(공동체)중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인간의 행복과 정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보편적 평화를 확보해 줄 수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Sabine, 1956: 258). 황제는 보편적 공동체의 통치자로서 제국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유일의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 황제는 텁욕과 편견을 초월해서 제국내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지위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제국구성원은 평화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Sabine, 1956: 259). 즉 황제는 보편적 평화와 자유의 보장자로서 자신의 이익이 아닌 제국구성원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서 통치하는 공정한 집행자인 것이다.

단테는 종교적 경건심과 왕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어 있는 정치, 사회적 혼란의 상황은 제국에 의해서만 구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제국의 황제는 제국구성원들에게 공동이익을 위하여 협력하는 충동심 그리고 그들의 공동시민의식을 배양함으로써 제국연방으로 가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III. 연방유럽의 관념

연방유럽의 역사적 전통에서 유럽을 정치적으로 통합시키려는 수많은 관념들이 어려움없이 출현할 수 있었다. 학자들의 저서에 나타난 그 관념들은 시기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상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극단적으로 혼동된 특징

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방의 관념은 중세시기와 근대 시기에도 나타났지만 실제 이론적 내용을 갖추고 현실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제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이다. 여기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출현했던 연방유럽의 관념을 19세기에 초점 을 두면서 우선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제 2차 세계대전후에 나타났던 관념들을 저항 주의운동, J. Monnet 그리고 영국의 시각 등으로 범주화해서 알아보겠다.

1. 제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의 유럽연방의 관념

14세기초에 Pierre Dubois는 *De Recuperatione Tene Sanctione*의 논문에서 교황과 황제도 아닌 기독교 공화국의 대의제에 의존하는 유럽연방을 제시했다. 1464년 불란서 모험가인 Antoine Marigny는 당시 보헤미아 국가의 왕인 George of Podebrad에게 새로운 유럽의 조직에 의한 인민과 왕의 해방을 주장했다. 그외에도 Sully는 기독교의 보편적 질서를 기초로 하는 기독교 공화국을, 영국의 유명한 웨이커교도인 William Penn은 유럽의회의 확립을, 그리고 l'Abbe' de Saint Pierre는 영구평화계획 (Project de paix perpetuelle)을 각기 제안했다. 이 중에서 l'Abbe' de Saint Pierre의 관념은 주권국 기들의 영속적 동맹, 주권국가의 유럽상원에의 종속, 모든 국가들이 동맹의 비용을 부담하는 재정적 책임성 그리고 조약을 위배한 국가에 대한 집단적 간섭 등의 구체적이고 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연방의 관념은 근대민족국가 체제의 시기에도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19세기에 민족주의 운동의 격렬한 열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치운동으로서 집단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Renouvin은 종교적 공화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유럽합중국을 소개했다. 독일의 법학자인 Johannes Sartorius는 독일의 국가연합에 기초한 유럽국가들의 연방을 제시했다.

M. Chevalier는 연방유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전에 신성동맹의 미명하에 그리고 오늘날은 유럽협조체제의 미명하에 유럽은 독자적 민족성과 완전하게 양립할 수 있는 동일의 최종 목표를 향해서 행진하고 있다. 상업과 의사소통의 개선, 평화의 이득에 대한 충분한 인식, 예절과 관습의 유연성 그리고 종교에 의해서 받아, 파종되었던 세계동포애 감정 등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촉구하고 있다(1843: 328)

1848년 제 2차 불란서 혁명은 유럽연방의 관념이 정치운동으로서 집단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Cattaneo는 민족국가와 연방유럽의 모순적 관념들의 종합화를 시도

했다. 그에 의하면 민족국가와 공화주의 관념의 원리들이 승리하는 시대에 자유로운 인민의 연합으로 구성된 유럽인민은 유럽합중국을 건설하는 것이며 이것이 유럽의 평화를 보장해 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그리고 1894년에 Mazzini도 유럽합중국을 국제연맹으로 가는 중간단계로 보았다.

2. 저항운동과 연방유럽의 관념

제 2차 세계대전의 경험과 재앙은 유럽인들의 정치적 태도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유럽의 나치점령 국가들에서 형성된 저항집단(resistance group)들은 유럽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저항운동들은 전쟁 이전의 상태로의 복귀를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유럽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투쟁을 했던 것이다(Rothfels, 1948:152).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³⁾ 저항운동가들은 모든 유럽국가들로 구성된 민주적 연방의 수립을 그들의 정치적 목표로 설정했다. 그들은 통합된 유럽이 나치즘과 파시즘같은 전체주의 지배의 대두를 억제시키고 유럽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저항운동은 소수 지식인들에 의해서 주도된 것으로서 군사적 행위 이외에도 수많은 행위를 했다. 그 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유럽인들이 전체주의의 경험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전체주의 지배에 대한 그들의 적대감을 강화시켜주는 윤리적, 정치적 원칙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저항집단들은 불법적인 신문 또는 유인물을 발간, 배부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다. 저항운동가들은 이러한 간행물에 지적이고 정신적인 저항,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적극적 투쟁, 지적 반대의 동원 그리고 유럽의 미래에 관한 계획 등을 담고 있는 논문을 실었다.

저항운동의 윤리적, 정치적 원칙들은 보다 나은 유럽을 건설하려는 특정계획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었다. 운동의 지도자들은 모든 종류의 집단주의에 대한 인권의 회복 그리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귀중한 민주적 가치라고 간주했다. 마찬가지로 미래 국내정책에 관한 제안들도 국가의 전체성의 요구에 대한 반대로 특징지어진다. 이들은 국가권위의 철저한 제한, 지방자치의 실시, 중앙집권화된 민족국가에 상반되는 것으로서 지역연방의 가능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독자적 지방에 의한 분권화와 지방자치의 실시가 민족국가의 절대주의적, 중앙집권화적 권력에 대한 효과적 견제책이 된다는 것이다.

저항운동의 지도자들은 제 2차 세계대전을 국가주권의 큰 위기로서 생각했다. 권력

3) 대표적인 저서와 논문으로는 Delzell(1960, 1961)을 들 수 있다.

의 넓은 극단성은 민족국가로부터 탈취되어 초국가적 권위체로 이관되어야 한다. 요컨대 외교문제의 영역에서 그들은 국가의 전체성 요구에 반대하는 대신에 세계평화조직의 틀내에서 연방유럽을 요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유로운 공동체 형성을 방해하는 장애물 즉 민족주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조성된 전체주의 지배의 가혹한 불가피성은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Lipgens, 1975: 7).

더우기 국제연맹의 실패경험도 저항운동의 지도자들이 효과적인 연방유럽의 건설을 제안할 수 있게 한 요인이 되었다. 불란서 저항운동으로부터의 한 성명에 의하면 국제연맹은 국가주권으로부터 독립한 자율적 조직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평화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정치적 권위와 물질적 힘도 갖고 있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국제연맹의 실패는 그것이 국가의 주권보다 우월한 의사결정기구와 집행권을 갖고 있지 못한 체회원국가들의 만장일치적 투표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강력한 연방유럽정부의 구성은 절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한 미래의 단계라고 간주되었다.

폴란드 저항운동의 지도자들은 폴란드는 자유로운 유럽국가의 연방체의 구성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연방에서 폴란드 공화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통일성을 촉진하며 연방구성원들을 외부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과장된 민족주의를 통해 내부분열을 조장하려는 모든 시도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연방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Lipgens, 1975: 9-10).

독일 저항운동을 대표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크레이소(Kreisau)는 유럽은 일정한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연방국가이고 그 연방은 외교, 국방 및 경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Lipgens, 1975:10). 네덜란드의 가장 중요한 저항출판물인 ‘Hetparool’은 새로운 최상정부가 유럽에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연방유럽은 그것의 의지를 민족국가에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을 소유해야 한다.

이태리의 저항운동의 프로그램은 전 유럽대륙에서 자유와 안정의 유지는 연방유럽과 그것의 집행, 입법 및 사법기관의 수중에 달려있다고 했다(Lipgens, 1975: 10).

마지막으로 불란서의 리옹 지역의 저항운동은 공동의 연방국가는 유럽의 경제생활을 조작할 권리, 군사력을 통제하고 파시스트 체제의 재건설에 반대할 권리, 외교관계를 규제할 권리, 그리고 아직 독립하지 않은 식민지국가를 관리할 권리등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또한 국가의 시민이외에도 유럽시민권을 칭안해야 하고 연방국가의 정부는 민족국가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민주적인 직접선거방식으로 유럽시민들에 의해서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Lipgens, 1975: 10).

저항운동의 연방유럽의 관념은 전후처리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의 소극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실현될 수 없었지만 그것은 유럽 엘리트들의 정치의식과 행태에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전후에 유럽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유럽을 정치적

으로 통합시키려는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실제 그들은 이러한 통합과정에서 위기와 좌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유럽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저항운동의 지도자들이 연방유럽의 관념은 오늘날 유럽의 지도자들에게 유럽을 통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영감과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3. Jean Monnet의 연방유럽관념

전후시기에 유럽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J. Monnet이다. 그의 비판가들은 그의 노력이 유럽통합에 이득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었다는 지적을 하지만, 그의 공헌이 지대하다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슈만(Schuman), 스파아크(Spaak) 및 스피넬리(Spinelli) 등도 유럽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공동체를 창안하고 촉진시킨 주요한 역할은 모네에게 있는 것이다. R. Mayne(1966: 350)가 언급한 것처럼, 모네의 역할은 국제문제에서 그러한 혁명을 유발시킨 관념의 창시자로서 아직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모네는 유럽통합을 위한 현법적 공식을 궁극적으로 만드는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 공동체에 대한 그의 영향력은 놀라운 것이다. 실제로 전후기간의 유럽제도내에서 그의 공적 역할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최고 권위체(High Authority of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의 의장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1955년 메시아나(Messiana) 회의와 1957년 로마조약의 전문을 지탱해 준 원칙들은 명백히 모네의 연방유럽관념을 구체화시킨 것이다(Mayne, 1966: 367).

모네는 유럽평화의 주요한 열쇠는 불란서와 독일의 동맹관계의 형성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1952년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형성은 근대유럽의 최초 평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그 공동체는 평화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연방유럽의 기초를 최초로 형성했고 석탄과 강철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공동의 권위체제하에 놓이게 했다는 것이다(Monnet, 1978: 298). 그에게 있어서 유럽은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 의존하면서 국가적 경쟁력을 지양하고 평화와 번영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그는 유럽을 단번에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선 결속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성취와 신중성에 의해서 통합될 수 있다고 하였다(Mayne, 1978: 298). 모네는 초기통합으로부터 정치적 통합의 가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동체임은 하나 하나씩 느껴질 것이다. 매일매일의 실제는 공동체의 목표인 정치적 연합을 형성하고 유럽합중국을 건설하는 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 관념은 명백하다. 정치적 유럽은 실제에 기초한 인간 노력에 의해서 시기가 될 때 형성될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길만이 존재한다 : 그것의 길이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유럽의 통일은 모든 평화혁명처럼 시간이 걸린다(Mayne, 1978: 431-432)."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기능주의적 통합이론과 일치하는 점진적 연방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Burgess, 1989: 44).

연방유럽에 관한 언급은 모네의 성명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는 유럽공동체 자체를 유럽의 정치적 연방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형태로 보지 않았다. 차라리 그는 1970년대의 공동체를 기술하기 위해서 연방이전의 모델의 용어를 사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럽관념은 연방을 기초로 조직화되었고 공동체는 그것에 헌신하는 국가들로 구성되었다. 실제 그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의장으로부터 사임하고 1955년에 유럽합중국을 위한 행동위원회(The Action Committee for the United State of Europe)를 형성하고 그것의 의장으로서 1975년에 사임할 때까지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주도했다.

이 행동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모네는 직접적으로 정치 엘리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연방유럽을 확립하기 위해서 엘리트들의 합의를 창출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의 원칙에서 합의가 명백한 이상 그는 제로섬에 이르는 경쟁적 정당간의 협상의 정상적 절차보다는 공동해결을 기초로 하는 논의를 장려했다. 연방유럽은 각국의 정치적 지도자들의 집단적 협상을 기초로 해서 건설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럽인들의 지지는 환영했지만 그것은 연방유럽 건설에 필수적 요건은 아니다.

더우기 모네는 연방유럽과 공동체제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했다. 그에게 있어서 제도는 성공적 통합의 열쇠가 된다. 제도들이 일단 확립되어서 성장을 하게되면 그들은 집단적 경험을 축적하기 때문에 형이상학적 관념이나 이론의 영향보다도 훨씬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Monnet, 1978: 393). J. P. Duroselle(1970: 367)은 제도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공동체를 위한 가장 지속적인 유산이라고 주장했다. 통합 또는 정치적 연합에 관한 경쟁적 관념들은 공동체의 혼란한 역사동안에 생성, 소멸된다. 그러나 공동체의 제도적 구조와 관계는 1950년도 슈만의 선언이래 지속되면서 유럽인들에게 공동관례와 습관을 형성시켜주는 역할을 해왔다.

유럽공동체에서 제도의 발달은 정부간의 합리적 계획과 집단적 행위를 통한 통합의 기능적 접근법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능주의 대표적 학자인 Mitrany(1970: 72)는 기능적 접근은 국경을 초월해서 공동의 수요들이 존재하며 효과적 협상은 공동 관리하에서 이것들을 충족시키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 접근법은 국가의 주권을 양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특별한 임무의 공동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능한 많은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적 통합은 민족주의의 본성이 아니

고 그것의 차원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통합은 민족국가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모네는 기능주의자로서 통합의 경제적 접근의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Mitrany와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모네의 연방유럽은 Mitrany가 강조한 일련의 기술적, 기능적 요소들의 상호의존적 체계의 실체이다. 즉 그것은 기능적 원칙과 연방정부 형태의 정치적 목적의 결합체인 것이다. 모네는 이러한 상호의존성의 체계는 분쟁을 감소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국가간의 간접성을 더욱 정치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Mitrany의 기능주의 이론은 유럽통합과정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써 E. Haas는 신기능주의 이론을 제시했다. 신기능주의는 초국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중심적 제도의 형성과 경제적, 정치적 확산(spill-over)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통합은 한 영역에 있어서의 성공이 다른 영역으로 확산함으로써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초국가적인 연방제도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1964: 101). Haas는 유럽의 통합은 대중의 지지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엘리트들의 합의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다고 했다.

신기능주의 이론은 모네의 연방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모네도 통합의 성공적인 기능주의 형태는 피할 수 없이 연방적인 정치구조를 창출하며 이것은 점진적이고 누진적인 확산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 결과적으로 신기능주의와 모네의 가정에 중심적인 것은 확산과정의 자율적인 효과인 것이다. 모네의 연방유럽의 관념은 신기능주의를 유럽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네는 유럽공동체는 폐쇄적이 아닌 모든 유럽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1957년부터 1986년까지의 30년 동안에 공동체 구성 국가들의 수는 두 배로 증가했고 그 숫자는 2000년이 되기 전에 더욱 증가할 가능성에 높다는 사실은 모네의 개방적인 유럽에 대한 신념이 유럽공동체의 관념내에 깊이 박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성의 원칙도 시련과 좌절없이 유지되어 온 것은 아니다. 1960년대에 공동체구성원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실패와 공동체의 가입신청국가들에 의해 경험된 과도적 문제들은 개방성의 원칙을 훼손시켰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협상동안 모네는 영국의 참여를 권유함으로써 이 원칙을 표시하려고 했다. 이러한 노력은 드골 대통령의 방해에 부딪혀 비성공적이었지만 그 후도 그는 유럽공동체의 맥락에서 불란서와 영국의 정치적 연합의 중요성을 자주 거론했었다.

결국 모네의 연방유럽관념은 반국가주의, 중앙집권화된 공동체 제도의 형성 그리고 개방성의 원칙 등의 주요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강력한 연방유럽의 형성을 강조한 연방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네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

단으로써 기능주의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경제적 기능주의자라고 보는 경향도 있다. 이런 점에서 Burgess(1989: 44)는 모네가 연방유럽(또는 유럽연방)을 최종 목표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경제적 기능주의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점진적 연방주의자라고 간주했다.

4. 영국의 연방유럽관념

영국에서 연방유럽의 기원은 19세기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국제정치에서 영국이 지니고 있는 특수한 이해관계때문에 이러한 관념에 대해서 영국인들은 적은 관심을 보였다. William T. Stead는 ‘The Pall Mall Gazette’의 편집인으로서 초기에 영국의 식민지들로 구성된 연방제국을 주장했지만 후에는 유럽합중국의 필요성을 실제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Whyte, 1925: 145-155). Max Waechter는 유럽국가들간의 경쟁은 세계에서 유럽의 경쟁적이고 도덕적 입장은 심각하게 약화시킬지도 모르는 위험하고 값비싼 무기경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유럽인민과 정부들에게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연방체제로 나가기를 촉구했다. 실제 그는 1909년 로마에서 개최된 제 1차 유럽연방회의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1914년에는 경제를 기초로 유럽국가 연방의 확립을 위해서 유럽통일연맹(The European Unity League)을 결성했다(The Times, 1914/1/31: 6).

제 1차 세계대전은 영국의 연방관념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었다. Walter Lipgens(1982: 35-36)가 지적한 것처럼 연방유럽의 핀님은 처음에는 소수 지식인들에 의해 지지를 받았지만 점차적으로 여러 집단과 위원회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정치 운동화하는 길을 걷게 되었다.

Ramsey McDonald, Charles Trevelyan 그리고 Norman Angell에 의해서 런던에 설립된 민주통치연합은 그것의 최초 성명에서 영국의 외교정책은 세력균형으로부터 연방유럽의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널리 알려진 ‘Review of Reviews’와 ‘Daily Citizen’의 신문들은 유럽에서 미래의 평화와 안전은 연방적 해결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19년부터 1940년의 기간동안에 연방유럽을 주창하는 수많은 집단들이 형성하였다. 범유럽연맹(Pan-European Union), 신유럽집단, 신연방사회(New Commonwealth Society) 및 연방연맹 등의 집단들이 설립되어서 유럽합중국을 제안했다. 특히 연방연맹은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W.B. Curry는 *The Case of Federal Union*라는 저서에서 서구의 민주적 원칙에 기초한 자유로운 인민의 연방을 세계정부로 가는 최초의 단계로서 주장했다. 연방연맹의 지지자들은 Winston Churchill이 1940

년 6월 18일 연설에서 불란서와의 연방연맹을 제안했을 때 실질적 힘을 얻게 되었다. 일부 연방주의자들은 이것을 영국이 그것의 헌법구조를 연방형태로 개혁하려는 준비의 증거라고 간주했다. 그러나 처칠의 제안은 연방의 의미있는 전례로서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다. N. Forman은 연방연맹은 처칠의 제안에 숨겨져 있는 실질적 동기를 잘 못 간파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즉 그것은 봉괴해 가는 Reynaud정부의 결단을 견고하게 하려는 때늦은 제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1973: 62-90). 연방유럽에 대한 영국의 공헌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비교할 때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소극적 역할은 유럽대륙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다. 영국은 대륙국가들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 대륙에서 세력균형을 조성하려는 이른바 균형자(balancer)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외교정책의 주요한 지표로 삼아 왔다. 이러한 견원정책은 영국에서 연방관념이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지 못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에서 국제정세의 변화는 영국이 유럽문제에 적극적 관심을 갖게 했으며 연방유럽은 이러한 정치적 변화에 대응하려는 중요한 외교전략으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영국의 연방관념들은 학문적인 관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륙의 유럽연방전통에 흡수되었다.

이태리의 유럽연방주창자인 A. Spinelli는 영국의 연방관념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우리는 영국을 연방관념을 혐오하고 있는 국가로 생각하곤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사고방식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이러한 인상을 강화시켜 주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그렇지가 않다. 정복 이외의 다른 수단 즉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 초국가적 정부를 형성하고 주권의 뜻은 정부의 여러 기간에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관념은 전형적으로 앵글로색슨의 개념이다… 우리는 연방경험은 영국의 정치적 정신에 매우 가깝고 그리고 영국은 쉽게 연방개념과 그것의 논리적인 정치적, 경제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이해의 또다른 증거는 유럽대륙의 연방문헌보다도 우수한 연방연맹의 문헌에도 나타난다. 그것은 연방의 문제가 제시되고 그것의 장애물이 검토되고 그리고 해결책이 제시되는 방식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태리에서 가장 일관성이 있다는 연방주의운동은 영국의 연방주의 문헌에 관한 연구로부터 많은 것을 흡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Haines, 1957: 38-40).

실제로 1980년대에도 영국의 연방관념이 유럽대륙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유럽의회의 유럽민주주의 가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영국 연방주의자들은 연방관념의 계속

성을 주장했다. 연방관념이 유럽대륙에서 다시 인상적인 활력을 갖고 유럽인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영국의 유럽공동체 가입과 그것의 연방유럽에 대한 적극적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국의 연방유럽에 대한 기여도는 과소하게 평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IV. 연방유럽관념의 특징과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방유럽의 관념은 유럽의 정치사에서 유럽을 정치적으로 통합시키는 방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유럽의 통합작업은 일시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통합은 먼 과거의 시기부터 시작되어서 현재의 순간에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연방유럽의 관념들은 상이한 시대적 조건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각기 다른 이념적 성향과 내용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유럽관념의 주창자들은 유럽의 평화와 번영은 연방유럽의 보편적 질서의 확립에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공통기반으로서 공유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연방유럽관념들은 기본성향과 목표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러한 관념들의 특징적인 공통점을 그들의 문제점과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연방유럽의 관념들은 기본적으로 이상주의적 성향이 높후하다는 점이다. 그들은 국제정치의 이상적 전통을 따르면서 주권국가의 소멸을 통한 초국가적 권위체의 확립을 도덕주의적 입장에서 정당화했다. 이러한 전통은 국가들이 새로운 국제적 권위체(연방형의 초국가적 정부)에게 주권을 양도하고 충성을 서약함으로써 국제사회는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방유럽의 주창자들은 통합의 필요성을 도덕주의적 입장에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연방유럽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결여하고 있다. 연방유럽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여러 요인들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연방유럽은 유럽의 정치사적 전통의 맥락에서 구상된 순수한 도덕적 호소에 불과하다는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연방유럽의 관념들은 국제정치의 현실적 구조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주권국가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소유, 유지 및 강화하려는 권력정치는 국제사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유럽의 정치적 통합도 이에 대한 통찰력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다. 즉 연방유럽은 권력정치의 현실적 기초에서 확립되어야만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둘째, 연방유럽의 관념들은 국가의 주권문제가 정치적 통합에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

내정치연구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학자들은 연방유럽의 관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표시하면서 민족국가의 특수성과 국내정치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Hoffman, 1966:214). 민족국가의 주권을 대체할 초국가적 권위체를 확립하는 일은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 것이다. 연방유럽의 성공은 민족국가의 정부들이 어느 정도 자신들의 주권행사를 자제하고 초국가적 권위체에 복종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방유럽의 주창자들은 이러한 정부들의 통합과정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기보다는 차라리 초국가적 권위체 또는 그것의 제도에 초점을 두는 연구를 해 왔다.

법적 영역에서 유럽통합은 중간지대가 없는 제로섬 과정이다. 즉 초국가적 권위체의 법률이 민족국가의 그것보다도 우월한 것으로 수용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초국가적 권위체는 민족국가와 그것의 구성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권위를 행사한다. 그러나 정치적 영역에서 이 입장은 분명 치가 않다. 주권국가의 단일 모델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주권분리의 개념 또는 정부의 여러차원에서 권력배분의 개념을 수용치 않고 있다.

더우기 연방유럽의 주창자들은 국내 정치적 요인들로부터 오는 압력이 통합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모네의 신기능주의적 접근법은 국가적 그리고 초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집단의 역할에 비중을 주는 반면에 국내정치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을 경시했다. 관료제의 정부에 대한 영향, 정당정치와 유권자의 영향동은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만한 요소들로 간주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통합에 대한 논쟁에서 특정국가가 취한 입장의 실체를 결정하는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Bulner, 1982-1983: 349-363).

이러한 요인들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기초로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초국가적인 성격을 갖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행위와 결정이 기능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국가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초국가적 권위체의 권위에 충성을 표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와 결정도 민족국가의 경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주권의 지배를 벗어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족국가의 주권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제한없이는 연방유럽의 실현은 어려운 것이다. 연방유럽의 구성국가들이 연방정부의 권위보다는 자신들의 국내적 요인을 우선시하는 집착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한다면 연방유럽의 실현은 불가능할 것이고, 그들이 자신들의 주권에 제한을 가하고 연방정부의 권위에 복종을 하려는 입장을 보이면, 연방유럽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여기서 연방유럽의 주창자들은 연방유럽의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간의 협력에 새로운 활력과 내용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

만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을 찾는 문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연방유럽의 주창자들은 유럽통합은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을 요구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Rosenthal(1975: 57)은 1975년에 발간된 유럽공동체의 연구에서 과거에 성공적이었던 정책제안들은 적극적인 지도력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가로부터 지지를 얻었다고 결론지었다. 모네는 유럽통합과정에서 국가엘리트들이 그러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마도 정책제안이 국가 및 공동체의 결합된 지도력을 동원할 수 있다면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결합된 지도력을 통합과정에서 야기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지도력과 관련해서 지적해야 할 것은 정치엘리트들은 유럽 인민의 적극적 지지의 기반위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만 자신들의 지도력은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들은 유럽인들에게 유럽연방의 필요성을 자신들의 실제 생활에서 느끼게 함으로써 연방유럽에 관한 공동의 태도, 가치 및 충성심을 갖게 하도록 해야한다. 이런 방식으로 유럽인들은 연방유럽의 시민이 되고 연방유럽은 그들의 정치공동체로서의 의미와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연방유럽의 주창자들은 연방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유럽인들은 오랫동안 국가(state)와 민족(nation)의 개념들을 동일하게 취급해왔고 단일민족국가를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정치공동체로 생각했기 때문에 유럽통합을 단일유럽국가로 이해하고 있다. 연방유럽에 관한 오해는 이러한 오류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연방유럽은 현존하는 민족국가들을 가지고서는 건설될 수 없으며 이러한 국가들의 통합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초국가적 공동체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 제 2차 세계대전 후 모네를 포함한 연방주의자들은 이러한 연방의 개념을 유럽통합에 실천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게 됨에 따라 신기능주의 전략이 채택되었다. 신기능주의자들은 확산의 개념을 사용해서 특정분야에 통합을 이루하는 성과를 얻었다(Wheare, 1960:1). 그러나 이러한 제한된 통합의 형태에 연방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음은 명백한 것이다. 유럽통합의 불충분성은 연방의 개념에 관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의미에서 유럽공동체는 국가주권으로부터 연방형의 정치적 통합으로 가는 과도적 기간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룩한 업적을 토대로 더 많은 분야에서 통합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연방유럽을 달성하든가, 또는 더 이상 국가들의 협력과 지지를 동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은 더 이상 진전을 기대할 수 없는 답보 상태에 처할 것이다(Wallace, 1983: 67). 전자의 경우라면 유럽공동체는 연방유럽이

되어서 연방의 개념적 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라면 유럽공동체는 단지 국제체제(international regime)의 성격을 갖게 됨으로써 연방과 연합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에 계속적으로 놓이게 된다.

V. 결 론

유럽의 정치사에서 연방유럽을 확립하려는 역사적 경험이 누적되어 왔으므로 유럽 공동체도 이러한 맥락에서 분석될 필요성이 있다. 유럽인들은 오랫동안 유럽 개념의 형성을 통해서 우선 문화적 일체성을 확보하였고 그러한 일체성은 사회, 경제 및 정치분야에서의 제한적 통합을 형성하는 기조로써 작용했다.

특히 기독교의 세력확장과 함께 확립된 중세사회는 유럽통합의 전통을 더 한층 강화시켜 주는 연방의 유산을 전해주었다. 중세사회는 교권과 세속권이 각기 교회와 황제(또는 군주)의 수중에 있는 보편적 질서를 확립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질서는 종교의 우월한 가치하에서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직화되었기 때문에 다원적이고 분권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다. 교회, 직업단체 및 도시 등의 중간집단들을 중시하는 중세의 다원적 사회는 연방의 비영토적 기능적 및 집단적 개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으므로 다원주의와 연방의 두 개념은 구분없이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중세사회의 연방유럽에의 또다른 유산으로는 제국의 국가형태를 들 수 있다. 제국은 다민족적인 구성국가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해서 국가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연방주의로 해결하려고 했다. 이러한 처방책은 구성국가들의 독립과 연방체제에 대안으로써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제국옹호론자들은 제국이 연방으로 발전하면 인간의 평화와 자유는 어떤 국가규모에서도 잘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이러한 연방유럽의 지적 유산은 학자들이 연방유럽의 관념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연방유럽 관념들은 다양하게 출현했지만 그들의 이론적 구조가 단편적이고 체계성을 결핍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지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으로서의 정치적 효과보다는 도덕적 효과의 의미를 더욱 지니고 있을 뿐이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연방유럽의 관념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 저항운동의 연방유럽관념, 모네의 연방유럽관념, 연방유럽에 관한 영국의 시각등의 중요한 관념들은 연방프로그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특징을 보였다. 그들은 연방유럽의 정치적 목표를 중시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에 대해서도 비교적 과학적인 접근을 했다. 특히 영국의 연방관념은 대륙국가의 연방전통에 흡수되어서 유럽공동체의 발전에 일조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유럽의 관념들은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들은 유럽의 평화와 안전을 극단적으로 강조한 나머지 연방유럽을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들은 국제정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정치와 민족국가의 주권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지 못한 대신에 도덕주의적 이상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외에도 연방유럽의 주창자들은 유럽통합과정에에서 요구되는 정치엘리트들의 지도력 문제를 경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난제들을 국가지도자들의 탁월한 지도력과 그들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확립의 조건에서 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방유럽의 형성은 강력한 지도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연방유럽의 관념들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들은 유럽공동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고 본다. 유럽공동체가 이러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유럽연방의 정치적 통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공동체는 앞으로 의 진전이 없는 답보상태에서 언방도 연합도 아닌 국제체제(international regime)의 애매모호한 성격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성공적 으로 달성한 유럽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연방유럽관념들이 제공한 역사적 교훈을 명심 해서 마지막 단계인 정치적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는데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아마도 이것이 연방유럽의 관념들이 유럽공동체의 지지자들에게 의미 가 있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참 고 문 헌〉

김병옥 역

1983 「역사철학」, 세계사상대전집II, 서울: 대양서적, G. W. Hegel, *Philosophy of History*
최명 역

1985 「민주국가론」 A. Lijphart, *Democracies Patterns of Majoritarian and Consensus Government in Twenty-One Countries*, New Haven: Yale Univ. Press

Bakvis, H

1981 *Catholic Power in the Netherland*, Kingston and Montreal: McGill-Queens Univ. Press

Bulner, S

1982-1983 “Domestic Politics and European Community Policy-Making”, *Journal of Commonmarket Studies* 21: 349-363

Burgess, M.

1989 *Federalism and European Union: Political Ideas, Influences and Strategies in the European Community 1972-1987*.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Chevalier, Michel

1843 *Essais de Politique Industrielle, Souvenirs de Voyage*. Paris: Librairie de Charles Gosselin Delzell C. F.

1961 *Mussolini's Enemies: The Italian Anti-Fascist Resistanc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0 "The European Federalist Movement in Italy: First Phase, 1918-1947", *Journal of Modern History* 32: 241-250

Duroselle, J. P.

1970 "General De Gaulle's Europe and Jean Monnet's Europe", C. Cosgrove and K. Twitchett (eds.) *The New International Actors: The UN and The EEC*. London: Macmillan

Ehrlich, S.

1982 *Pluralism on and off Course*. London: Pergamon Press

Forman, N.

1973 "The European Movement in Great Britain 1945-1954",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 of Sussex

Friedrich C. J.

1965 *Constitutional Government and Democracy: Theory and Practice in Europe and America*. New York: Blaisdell

Gierke, Otto Von

1960 *Political Theories of the Middle Age*. F. M. Maitland(trans.), Boston: Beacon Press

Grodzins, M.

1967 "The Federal System" A. Wildavsky (ed.) *American Federalism in Perspective*, Boston: Little Brown and Co.

Haas, E.

1964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orces 1950-1957*. Stanford: Stanford Univ. Press

Haines C. Grove (ed.)

1957 *European Integr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Hoffman, Stanley

1964 "Obstinate or Obsolete?: The Fate of the National State in Western Europe",
Dedalus (Summer) 53: 202-226

King, Preston

1973 "Against Federalism", R. Benewick, R.N. Berki and B. Parekh (eds.) *Knowledge
 and Belief in Politic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82 *Federalism and Federation*. London: Croom Helm

Lipgens, Walter

1975 "European Federation in the Political Thought of Resistance Movements during
 World War II", F. Roy Willis (ed.) *European Integration*. New York: New
 Viewpoints

1982 *A History of European Integration 1945-1947*. Vol. 1, Oxford: Clarendon
 Press

Mayne, R.

1966 "The Role of Jean Monnet", *Government and Opposition* 2: 331-362

Mcwhinney, E.

1962 *Comparative Federalism State's Rights and National Views*. Toronto: Univ.
 of Toronto Press

Mitrany, D.

1970 "The Functional Approach to World Organization", C. Cosgrove and K.
 Twitchette (eds.) *The New International Actors: The UN and EEC*. London:
 Macmillan

Monnet, J.

1978 *Memories*. R. Mayne (trans.), New York: Douleday and Co.

Morgenthau, Hans

1963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Alfred Knopf

Nicholls, D.

1975 *The Pluralist State*. London: Macmillan

Pentland, C.

1973 *International Theory and European Integration*. London: Faber and Faber

Rosenthal, G. G.

1975 *The Man behind the Decision Cases in European Policy-Making*. Lexington,
 Mass.: D. C. Health

Rothfels, H

1948 *The German Opposition to Hitler*. Hinsdale, Illinois: Dryden Press

Sabine, George

1956 *A History of Political Theory*. New York: H. Holt and Co.

Sibley, Q

1970 *Political Ideas and Ideologies*. New York: Harper and Row

Sidgwick, Henry

1969 *The Development of European Polity*. New York: The Macmillan Co.

Spinelli, A

1957 "The Growth of the European Movement since World War II", C. G Haines
(ed.) *European Integr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Stein, M

1968 "Federal Political System and Federal Society", *World Politics* 20: 711-734

Ville, M. J. C.

1977 "Federal Theory and the New Federalism", D. Jaensch(ed.) *The Politics of New Federalism*. Adelaide: Univ. of Adelaide Press

Wallace, William

1983 "Europe as a Confederation: The Community and the Nation-State", Loukas Tsoukalis (ed.) *The European Community: Present and Future*. Oxford: Basil Blackwell

Wheare, K. C.

1960 *Federal Government*. London: Oxford Univ. Press

Whyte, F

1925 *The Life of W. T. Stead* Vol. 1 London: Faber and Faber

Theoretical Roots of the European Community

Chan-Rai Cho

The European Community needs to be analyzed in the historical context, for European have made continuous efforts to build up a federal Europe for many

centuries. The origins of federalism can be traced back to the Medieval society which has been mainly characterized by its universalism and pluralism. At that time, federalism was used as an identical concept with pluralism in that the former might be regarded as a general principle of social organization.

The empire that had existed as a form of state in the political history of Europe can be mentioned as another intellectual legacy of the federal Europe. It had a significance as the effective prescription for organizing its multi-national, constituent states and ensuring uniformity among them. Indeed, this fact was proved in the historical realities of the Rome Empire and the Holly Rome Empire.

These intellectual legacies worked positively to form many ideas of the federal Europe. The ideas of the federal Europe that had appeared before the Second World War was fragmentary and unsystematic. They were generally said to carry moral rather political tone.

However, the idea of the federal Europe appeared in diverse forms after the Second World War. For the convenience of analysis, they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heoretical segments; the idea of the resistance movement, J.Monnet's idea and the British perspective. They all presented relatively concrete and systematic programs for the united Europe. In particular, J. Monnet proposed that a federal Europe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neo-functionalism and incrementalism. His idea of the federal Europe emphasized anti-statism,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 building within the E.C. and the collective bargainings among political elites of every state.

These ideas of the federal Europe are subject to the criticisms that they tended to overlook the power politics of international society, the sovereignty of nation-state and leadership of political elites. If the above problems are to be solved satisfactorily in the future, the European Community would attain political unity on a federal basis. Otherwise it should be in an ambiguous state of the international regime that means neither federation nor confederation.

조찬래,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소 : 대전직할시 유성구 궁동 220

Tel : 042-821-5856(O), 042-526-0439(H)